S#4 강습 전 카페

 # 주연, 카페에 두리번거리며 앉아있다

주연　　(두리번) 이야아 야 바다 진짜 이쁘다 서핑하는 거 다 보여 다 보여

 # 가령, 쟁반에 음식을 들고 자리로 온다
 #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여진다

가령　　(쟁반 놓으며) 여기서 먹으면서 기다리면 방송 울릴거야
주연　　헐 미친 개맛있겠다 빨리 사진찍어

주연이 엉거주춤 일어나서 옹졸하게 폰을 들고 이리저리 찍는다

주연　　야 에이드 좀 옆에 놔봐봐
가령　　뭐 여기?
주연　　좀만 더 좀만 더. 아 됐다

주연이 자리에 앉으며 창문 밖을 본다
창문 밖 주연 시선으로 어딘가로 걸어가는 코치가 보인다
 # 주연, 코치에게 시선 고정

주연　　(턱짓) 야 어때.
가령　　(자르거나 오물거리거나. 눈은 음식에 고정. 턱짓만 살짝) 아까 그 분?
주연　　가슴 갈라진 거 봤냐? 피부 타서 쎅시한거 봐라
가령　　엉 뭐.. 나쁘진 않더라
주연　　뭘 나쁘지 않아 이미 인스타 맞팔했더만. 이렇게 선수쳐도 되는거가?
가령　　엥? 내가 맞팔 되있다고?
주연　　밑에 보드에 코치들 인스타 있길래 다 긁었지. 니랑 저 분이랑 왜 아는 사인데? 저 사람이랑 뭐 있었냐?
가령　　어...(기억 더듬는 중) 아 걱정하지마라. 절대 아니다 절대. 그거 저번 여름에 인솔할 때 맞팔한거야
주연　　확실하나? 맹세할 수 있나? 알고보니 뭐 찍먹 이런거 아니제
가령　　아아(질색) 아 그런거 아니라고!! 진짜 아니다. 나 요새 연애할 생각 없다.
주연　　...니가?
가령　　아 몰라. 걍 요새 별 생각도 없고 딱히 뭐.. 만나고 싶지도 않고.. 끌리지가 않는다.
주연　　그거 니가 아직 니 취향 안 만나서 그래
가령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걍 뭔가 연애세포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애.
주연　　그럴 리가 없는데... 니가 귀염상 좋아해서 그런거 아니가

가령　　(끄덕끄덕) 아 뭐 그렇지 난 귀염상이 취향이긴 하지
주연　　나는 저 코치처럼 쌔끈빠끈한 사람이 좋더라! 하 근데 저 사람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지 않나. 디엠창 터질 것 같은데.
가령　　언젠 찐따 싫대매 나쁜남자가 좋대매
주연　　아 너어무 나쁘더라고.
가령　　“진혁이?”
주연　　“걔 이름 없어 이제.”
가령　　“왜?”
주연　　“4789번이야.”
가령　　“그럼 찐따를 만나.”
주연　　“재미 없어. 다 아저씨같애.”
가령　　“(뱉어)그럼 애를 만나.”
주연　　“(한숨) 애가 나한테 왜 오니이이!!!!! 가령아!!!!”
가령　　“그러게(낄낄)”

창문 밖, 해변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코치가 보임
주연, 눈만 돌아간다

주연　　“작전 좀 세우자. 이거 못 낚으면 백퍼 후회한다 이거.”
가령　　되겠나 그거? 뽕이라도 넣게?
주연　　남자들은 일단 가슴 크면 좋아한다

창문 밖, 코치가 1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주연, 본다
방송 소리 (E) 13시 강습 들으시는 분들은 1층으로 내려와주시길 바랍니다~
주연, 말벌 아저씨처럼 호다닥 프레임 아웃
가령, 한숨 쉬며 쟁반을 들고 프레임 아웃

EP 2

S#3 술자리 스몰토크

코치　　요새 워케이션 센터는 어때요 한가해요?
가령　　저희야 뭐 성수기 비수기 살짝씩 따라가니까... 요새는 평소처럼 오시는 것 같아요.
가령　　저번엔 서핑하러 온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요새는 많이 없죠? 아무래도 추워서
코치　　서핑 쪽은 뭐 엄청.. 한산하네요 역시. 다른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많이 하시나요?
가령　　네네 간단하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걸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액티비티는 여름에 많이 몰리니까... 겨울은 춥잖아요. 오늘 보니까 바닷물이 크게 차갑진 않은 것 같았지

만..
주연　　아~~~여러분 여기까지 놀러왔는데에 회사 얘기는 그만합시다아! 다시 짠!!

짠
짠 치고 코치, 안 마시고 술잔 든 채 하던 얘기 계속함

코치　　(술잔흔듬)서핑 사실 사계절 운동인데 다들 잘 모르셔서 아쉬워요. 겨울에 와도 서퍼복이 따뜻한게 있어서 오히려 땀 나는데.
주연　　(원샷하고 캬아 하면서)아 정말요? 그러면 막 겨울에도 더워서 땀 나고~ 가끔 서퍼복 벗어서 바람도 맞고 하시겠네요???? 여어억시.. 핫가이들이라니까~
코치　(어색한 웃음) 친구분 벌써 취하신 거 아니죠?
가령　(감싸려는시도)냅둬요 일하러 왔다가 놀러오니까 기분 들떠서 저래요

#S4 술자리 (다들 취해있고 인생 사는 토크)

#테이블에 쌓여있는 술병들
#코치와 가령, 얼큰하게 취해서 대화하고 있다.
#취해서 반쯤 엎드려 있는 주연

코치　가령씨 친구분도 그렇고 서울에서 왔는데 주변에 올라간 친구들 많아요?
가령　네...진짜 부산에는 경험 쌓을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다들 어쩔 수 없이 올라가더라구요 .. 그리고 서울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애요.

#듣고 있는 건우

가령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 소주 한잔 같이 할 동네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코치　다른 지역가서 생활하면 외롭죠 동네 친구들도 없고(공감) 그리고 서울은 돈 모으는 건 포기해야 한다더라구요
가령　월세도 너무 비싸고 물가랑 교통도 너무 비싸서 숨 막힌대요 서울은
코치　그래도 그만큼 일자리가 많으니까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가령　네...근데 부산도 돈 모으기 어려워요.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지.
　　저도 여기 취업 어렵게 했거든요
코치　취업은 안해도 스트레스고 해도 스트레스죠.
가령　그렇다고 부산에서 알바만 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코치　심지어 요샌 풀알바도 없잖아요? 뭐 저희 카페 알바도 다 파트타임인데.
가령　저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풀알바 뛰면 돈을 모을 순 있었어요. ..요즘은 몇 탕은 기본으로 뛰더라고요.
코치　친구 따라서 올라가고 싶진 않아요?
가령　저는... 부산에 가족도 집도 다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있을 것 같아요. ...서핑도 요즘

양양이 핫플이잖아요 코치님도 안 올라가고 부산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코치　저도 가령씨처럼 가족들이 부산에 있기도 하고 서핑 같은 바다에서 즐기는 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부산이 최고라서요
가령　맞아요 바다는 부산이 최고죠! ...바다만 있어서 그렇지. 노인과 바다라는 말 알아요?
코치　아 요새 그렇게 말해요?(아하하)
가령　네 부산엔 노인이랑 바다밖에 볼 게 없다고 노인과 바다래요
코치　맞는 말이네요 그거.

#약간의 정적

가령　막상 일을 하니까 사람에 너무 치여서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코치님도 안그래요?
코치　아 말도 마세요~ 이때까지 만난 진상썰 풀면 가령씨 오늘 집 못 갈껄요?
가령　어! 저도 진상썰 한 보따리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코치　그러니까요 사회 나가면 내 편도 없고 지치죠
가령　....가끔 너무 힘들면 내 편이 있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이젠 지치는 것 같아요
코치　가령씨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죠
가령　다 옛날 얘기예요... 연애 하는거 정말 좋아했는데 하루하루 살기 바쁘니까 연애세포가 죽은 것 같아요
코치　가령씨 정도면 어디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저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저한테 오늘 호감 있으셔서 그랬던 건 아니죠?
코치　...(잠깐 정적 후에) 없는건 아니었죠
가령　저도 그래요 오늘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옛날 같았으면 코치님이랑 다른 관계가 됐을지 뭐 모르죠? 지금은 뭘 더 하기가 지쳐서 그렇지..(말 흐리며)
코치　(끄덕이며 살며시 웃는다)
　　가령씨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다는 말이죠?
가령　글쎄요..?
코치　그럼 우리 이제 친구인가?
가령　(취기 가득) 친구 좋죠!!
코치　(씁쓸하단 표정) 좋네요 저희 이제 일어날까요?
가령　네~ 들어갑시당